

기업의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성과 분석 연구 -현대자동차그룹 기프트카 캠페인을 중심으로- Low-Income Class Business Incubator Project' Accomplishment Analysis -Hyundai Motor Group's Gift-Car Campaign Focused-

정선욱*, 손주영**, 김은정**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SunWook Jung(swjeong@duksung.ac.kr)*, JuYoung Son(sjy1481@childfund.or.kr)**,
EunJung Kim(ejkim@childfund.or.kr)**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이 참여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이 참여하는 창업지원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 캠페인을 분석하였다. 이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질적 평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함', '미래가 있는 삶이 현실로!', "나와 '나'를 둘러싼 관계의 변화" 등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의 본질은 "다름"의 경험, '저소득층의 삶에 숨결과 희망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성과는 기업 창업지원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 시켰고, 빈곤과 자립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서 기업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 갖는 중요성 또한 입증하였다.

■ 중심어 : | 기업 창업지원사업 | 질적 평가 | 성과 평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brief accomplishment analysis of Low-Income Class Business Incubator Project, based on applicants' perspective who has been supported by this project, which is funded by the enterprise. As a result of 'quality focused evaluation method', it shows that Low-Income Class Business Incubator Project's applicants experience both economic and non-economic accomplishments such as "work with responsibility," "better future in reality," "Self and change of relationships around self". It concludes that "experience of difference" or "providing hope for Low-income class" brought positive effects on applicants who participated in this projects. The study revealed the virtue of this Low-Income Class Business Incubator Project and reassured its message: the importance of major corporate' responsibility in solving social issues, especially in poverty and its independence.

■ keyword : | Business Incubator Project which is funded by other enterprises | Quality Evaluation | Accomplishment Analysis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일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평가하는데 있다. 창업지원사업은 자활사업의 한 축인데, 자활사업은 흔히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도구와 방법을 지원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비유된다.

빈곤층에게 창업은 어떤 의미일까? 자영창업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빈곤퇴치 전략 중 하나로, 이미 많은 저개발국가에서 빈곤탈피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1]. 미국은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그리고 빈곤 탈피 방안으로 창업에 주목하였고 영국은 실업 해결 방안으로 창업을 강조하였다[2].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자활, 빈곤 탈피를 목적으로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자활기업’, ‘생업자금지원’¹ 등이 있다.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소상공인²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에서도 자금지원, 창업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등과 같은 비영리 민간기관에서도 기업 혹은 정부와 파트너가 되어 다양한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는 정부와 비영리 민간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가 요구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도 많이 변화하여, 과거에는 기업이 일회성 기부로 사회문제에 접근했다면 최근에는 전문 비영리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태를 통한 장기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1 생업지원사업은 2015년 사업 종료되었고 2016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탄생한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합되었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업체를 뜻한다.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³. 결국,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지원사업에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 중인 창업지원사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희망가게’⁴, 현대엔지니어링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⁵, 한화생명 ‘청년창업 지원사업(SEEKER:S)’⁶, 삼성생명 ‘사람사랑 Dream Shop’⁷, 현대자동차그룹 ‘기프트카 캠페인’⁸ 등이 있다.

이처럼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은 정부 혹은 비영리단체가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3-9]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기업의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 캠페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최근의 사회공헌활동이 국가 복지의 틈새를 매우는 차원에서 일시적인 문제해결방식인 ‘긴급지원형’ 위주에서 기존의 ‘긴급지원형’과 병행하여 ‘자립촉진형’, ‘미래자원 육성형’, ‘유무형인프라 조성형’ 등의

3 예를 들어 SK가 진행하는 ‘행복도시락’, ‘행복나라’ 등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 삼성의 ‘드림클래스’, 교보 ‘다솜이’,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 캠페인’ 등이 사회문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배지양, 2015).

4 ‘희망가게’는 2004년에 시작된 저소득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임대 중심의 창업지원사업으로, 아모레퍼시픽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수행하며 무담보 소액대출(최대 4,000만원), 전문 창업컨설팅,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5 ‘디딤돌하우스 프로젝트’는 2013년 시작된 쪽방촌 자활공동체사업으로, 현대엔지니어링과 서울시가 함께 수행하며 주거향상, 자활지원, 시설개선, 활력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6 ‘청년창업 지원사업(씨커스)’는 2013년에 시작된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한화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단법인 씨즈가 함께 수행하며 해외혁신사례 탐방비 및 창업씨앗자금 지원, 1:1 멘토링을 통한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한다.

7 ‘사람사랑 Dream Shop’은 2002년에 시작된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점포창업 중심의 창업지원사업으로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수행하며 창업자금 무상지원, 교육, 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8 ‘기프트카 캠페인’은 2010년에 시작된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수행하며 차량 및 창업자금 지원, 창업교육, 컨설팅, 사례관리 등 통합적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12], ‘기프트카 캠페인’과 같은 자립촉진형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우리사회의 빈곤과 실업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기업의 창업지원사업의 사례 중,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 캠페인’에 주목한 이유는 이 사업이 추진기간, 사업영역, 사업내용, 사업운영방식 등에서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추진기간면에서 기프트카 캠페인은 2010년에 시작되어 7년차를 맞이한 장수프로그램이다. 2014년 사회공헌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추진기간이 평균 5.2년, 추진기간이 1-3년인 경우가 응답 기업의 49.4%인 상황에서[10], 7년이라는 추진기간은 기프트카 캠페인이 장수프로그램 대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추진기간은 사회공헌활동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로서, 이러한 장수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분석은 이제 막 시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에게는 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기프트카 캠페인은 사업영역에서도 여타 사회공헌활동과 차별성이 있다. 기존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사업대상이 아동·청소년(36.2%), 장애인(13.2%), 노인(12.0%) 등에 대한 대상별 지원이 61.4%인 점을 고려할 때[10], 기프트카 캠페인은 기존 대상별 지원과 달리 성인기 청장년에 대한 지원이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아우르는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효과를 갖는다. 아모레퍼시픽의 ‘희망가게’, 삼성생명의 ‘사람사랑 Dream Shop’는 모두 여성 가장 대상 프로그램이고, 한화생명 ‘청년창업 지원사업’(SEEKER:S)은 청년 대상이다.

셋째, 기프트카 캠페인은 사업내용면에서도 다르다. 기프트카 캠페인은 창업 전 과정을 윈스탑으로 지원한다. 특히 차량 이동식 점포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즉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이후 창업교육, 창업자금지원, 컨설팅, 차량지원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패키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프트카 캠페인은 기존의 창업 묶음(창업교육, 창업자금지원, 컨설팅)에 창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차량이 추가된 형태

의 차량 이동식 점포 창업지원사업이다. 차량은 출퇴근뿐만 아니라 저장과 운송, 그리고 판매(배달)의 거점으로 점포의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를 내기 어려운 예비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차량 이동식 점포는 저자본 창업, 탄력적 운영 시간 등의 장점이 있는 창업 형태이다. 기업의 창업지원사업이 점포 창업에 국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차량 이동식 점포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라는 점이 기프트카 캠페인의 특징이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차량 이동식 점포 창업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자립 출구이다. 실제 점포를 마련할 자금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차량 이동식 점포를 통해 자금을 모아 점포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차량 이동식 점포의 선택은 창업의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프트카 캠페인은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의 하나로 충분히 검토될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프트카 캠페인의 사업운영방식도 차별성을 가진다. 기프트카 캠페인은 아동·가족 분야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NP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은 기업 사회공헌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및 인구 집단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문제해결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11], 이러한 점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오랜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온 기프트카 캠페인은 전문성과 사회문제해결 역량이 강한 프로그램이다.

이상의 네 가지 측면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 캠페인은 창업지원사업 분야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프트카 캠페인’을 사례로 지원 전·후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변화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업의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기업이 참여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기업 주도의 창업지원사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립촉진형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증거들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 창업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입증함으로써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창업지원활동의 파이를 키우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창업지원사업의 성과

‘성과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창업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연구에서 성과에 대한 대리변수는 주로 매출액, 순이익, 수급탈피율, 고용인원, 사업 유지기간, 주관적 재무성과처럼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재무성과와 함께 지원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사업만족도, 생활만족도 등)를 성과로 보기도 하는데, 한두 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풍부한 성과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성과가 경제적인 변화 뿐 아니라 내적역량의 변화, 심리적 변화, 관계적 변화 등을 포괄하여 다각도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14], 분석 자료의 한계 등을 이유로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성과를 무엇으로 보는가는 사업목적과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 캠페인의 ‘사업목적’은 창업지원을 통한 지원대상자의 ‘자립’으로, 여기서 자립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자립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비경제적 성과를 포함한 창업지원사업의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폭넓게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성과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린 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지원대상자들의 경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인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창업지원사업 성과 분석 사례

2.1 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성과 관련 연구

기업이 참여한 창업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 ‘사람사랑 Dream Shop’[12],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 ‘희망가게’[13] 등이 있다. 김승구[12]는 ‘사람사랑 Dream Shop’의 성과를 사업성과, 사업만족도, 생활만족도, 창

업경영지원 만족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업성과인 월평균 매출액은 287.5만원, 월평균 순수익은 145.5만원으로 나타났고, 사업만족도는 평균 3.92점(4점 만점), 생활만족도는 평균 3.18점(5점 만점), 창업경영지원만족도는 평균 3.28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창업주의 직업경험 및 심리적 특성, 지원사업의 전문적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향후 정부지원-민간운영의 틀에서 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기업의 창업지원 성과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름다운재단[13]은 희망가게 10주년 성과보고서⁹를 통해 변화유형 분석, 사업성과 분석, 폐업자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희망가게 참여자들은 소득창출(월평균 매출액 674만원, 월평균 순수익 253만원)로 인한 경제적 변화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사회적지지 관계망 향상, 자녀의 심리적 안정, 주거 안정 등의 다차원적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의 성과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참여자의 자주성과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의 발전과 다른 사업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임팩트 향상 등을 향후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10년의 성과를 내용 및 방법 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큰 연구이다.

그러나 기업의 창업지원사업 성과 분석 연구는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앞서 소개한 두 편의 연구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사업을 다뤘다는 점에서 기업의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2.2 기업 외 창업지원사업 성과 관련 연구

정부의 창업지원 성과 연구는 기업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편이며, 설계도 다양한 편으로 창업주 개인 및 업종의 특성과 사업성과 사이에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매개나 조절효과를 갖는지[3][16],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어떤 매개변수를 거쳐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

⁹ 아름다운재단(2013)의 희망가게 사업 10주년 성과 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이후 본 내용의 부분을 발전시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임유진 외[14]; 임은의 외[15])

게 되는지[17] 등에 관해 관심을 가진 연구가 있다. 김상순 외[3]는 창업과정특성이 사업성파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 창업지원제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과정특성 중 입지, 자금, 창업가정신이 사업성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소상공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입지, 자금 등에 관한 지원이 현실적인 규모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창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자의 창업과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전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종희와 조지운[16]은 경영자자질과 경영성과(재무성과/만족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영자자질 중에서 성취욕과 적극성이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은 경영자자질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괄 처리방식의 형태가 아닌 참여자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성취욕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대출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최동락[17]은 정부의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이 매개변수인 마케팅 차별화, 소상공인 지원센터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고, 중속변수인 경영성과(주관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자금/교육/컨설팅) 중 교육은 마케팅차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애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차별화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애착도는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화교육,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만남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 마이크로 크레딧10 방식의 창업지원을 하는 민간기관 관련 성과 연구

가 있다. 정영순[8]은 사회연대은행이 설립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창업을 지원한 업체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자기유능감과 순수익에 크지는 않지만 직접적 영향을 주었으며, 중간성과를 매개로 최종성과인 가구소득증가(7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탈피(52.8%)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실시될 때 더 큰 긍정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특성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사업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마이크로크레딧 형태의 창업지원 관련 성과 연구도 수행되었다. 성과는 일인당 매출액 및 창업 후 변화 정도[4], 사업체 수익 및 고용인원[6], 사업의 지속성[7] 등으로 파악하였으며,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금지원과 더불어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적 교육,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 지역 사회 내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장영미[7]는 창업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업수행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공통적 제안 외에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와 비전의 대내외적 공유,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다양한 대출상품 보유,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향후 창업지원사업의 설계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주로 경제적 성과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창업지원사업이 갖는 전반적 성과를 생생하게 그려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3.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 캠페인 소개

3.1 목적 및 현황

‘기프트카 캠페인’은 2010년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캠페인 중 하나로, 자동차 전문기업의 특성을 살려 차량을 이용한 창업의지가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1년부터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파트너를 맺었으며, 2010년(시즌1)부터 2015년(시즌6)까지 총 196대의

10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이란 뜻으로 생계형 창

업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빈곤층에게 창업기금을 보증이나 담보없이 신용으로 저리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기프트카를 지원하였다¹¹.

3.2 지원 대상 및 내용

‘기프트카 캠페인’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이 1억 5천만원(대도시)/1억(기타지역) 이하인 저소득자 중에서 차량을 활용한 창업의지가 있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생활현황, 신청사유, 창업계획 등)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면접심사/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주인공으로 선정된다. ‘기프트카 캠페인’의 주인공들에게는 차량지원(업종에 적합한 차량구입비), 창업 및 마케팅 자금(500만원), 차량 취득 세금 및 보험료(최대 300만원), 창업교육(2박 3일), 전문가 컨설팅, 사례관리 서비스(1년 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사의 1:1 사례관리), 창업자금 대출(대출심사 충족 시) 등 통합적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III. 연구방법

1. 질적평가

본 연구는 기프트카 캠페인에 참여한 저소득층의 경험을 중심으로, 질적평가를 통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창업지원사업의 성과가 보통 소득의 증가, 유지기간 등을 양적으로 평가하는데 치중했다면, 본 연구는 기프트카 캠페인의 수정보완 사안, 확산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참여자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창업의 성공/실패요인 가운데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중요하며[18][19], 개인적 특성은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참여자의 이해, 관점,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을 평가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질적 평가는 평가에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자료 수집, 연구참여자의 주관적 경험과 관찰적 맥락 증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20]. 비구조화된 서술적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상을 생생하게 이해

11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에게 일정 기간 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기프트카 세어링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수치는 제외하였다.

하는데 강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기존 양적 평가에서 객관성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 달리 당사자의 해석과 의미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포괄적인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양적 자료에서 담을 수 없는 깊이와 풍부함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적 평가의 강점에 기반하여 기프트카 캠페인 지원대상자의 관점에서 기프트카 캠페인 참여 경험과 의미, 성과를 질적 평가하였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2(2011년)~시즌5(2014년) 지원대상자 총 150명의 시즌별 지원대상자수, 업종, 가족유형, 정부보호상황의 특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예비명단을 작성하였다. 예비명단에 있는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현재 연락 가능하고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가치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의도적 표본추출하였다¹². 질적 표본추출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표본의 대표성이 아니라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표본을 뽑는 것이다[21].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의도적 표본추출을 진행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총30명의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수(총 30명)	
	성별	남
	여	10명
연령	30대	6명
	40대	15명
	50대	9명
시즌 (지원시기)	시즌2(2011년)	4명
	시즌3(2012년)	6명
	시즌4(2013년)	13명
	시즌5(2014년)	7명
업종	이동판매업	10명
	점포사업	9명
	기술서비스업	10명
	운송업	1명

12 1차 예비명단 작성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2차 의도적 표본추출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여기서 창업에 따른 경제적 성패는 고려하지 않았다.

가족유형	부모자녀가정	11명
	모자가정	7명
	부자가정	11명
	기타(1인가정)	1명
정부보호상황	일반	7명
	차상위	10명
	수급	13명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들이 연구참여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연구참역자가 사례관리 기관을 내방하여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2015년 7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5주간 진행하였으며 1인당 약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 전반(신청, 선정 과정, 이후의 변화, 의미, 바라는 점 등)을 아울러 이루어졌다. 면접 참여 및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내용을 모두 녹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저자가 김영천[22]이 제시한 질적 분석의 일반적 절차(개념화-범주화 과정)를 따라 1차 분석하였다. 우선 녹취한 자료를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표시하고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개념화하였다. 이렇게 개념화된 내용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한 번의 과정이 진행되고 난 후, 연구자들과 함께 다시 원자료(녹취한 자료)를 읽으면서 개념, 범주에 대한 1차 분석의 결과를 계속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는 동안 개념화와 범주화가 수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개념과 범주가 생성되기도 하였다. 개념화와 범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적자료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인 NVIVO 10.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기프트카 캠페인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프트카 캠페인 주인공이 된 지원대상자들은 ‘일’, ‘소득의 변화’,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관계 측면’, ‘향후 계획 설계’ 등의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 변화, 즉 성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 결과

의미단위	하위 범주	상위 범주
남의 차를 빌려 사용하니 눈치도 보이고 심리적 물질적 부담이 컸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됨/ 내 일을 내 통제 하에 둘 수 있음/ 노예 같은 삶에서 해방됨/ 누구를 쫓아 일당으로 일하던 것에서 차량 지원으로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됨	내가 일을 주도하게 됨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함
선정 후 기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해 걱정함/ 이동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줌/ 기동성이 증가함/ 땅을 더 임대하여 새로운 시도를 함/ 살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일 함/ 기프트카로 찾아온 희망을 잘 가꾸고 싶음(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음)/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음/ 기프트카 이름 때문에 더 열심히 함/ 기프트카 이후 일이 점점 많아짐/ 의욕이 없었는데 열심히 살게 됨/ 예전에는 일을 많이 못했는데 차가 생긴 후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함/ 여러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 일하기 수월해짐/ 차량 선정 이후 도움 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함/ 현대는 차를 지원했으니 지원받은 사람이 평생 먹고 살 길을 만들어야 함/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함	

의미단위	하위 범주	상위 범주
(기프트카 이전) 생각하기 싫은 삶, 생각하면 힘든 삶/아무리 준비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음/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과 같음/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음/ 담배와 술만 늘어가는 삶/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어 오늘날 남기면 되는 삶 /할 일이 없는 아침이 짝짱한 그래서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운 삶 (기프트카 이후)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희망을 발견함/개인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 계기 제공 /18년 자포자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줌/새로운 꿈을 꾸게 됨/ 북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 당침이 아니라 선발되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찾게 해줌 /선정되기 어려운 차를 받았는데서 자신감이 생김/ 영망진장이 아닌 제대로 삶을 살게 됨/ 삶의 전환점이 됨/삶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 술만 먹고 살던 삶에서 술 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음/ 용기와 배짱에 시동을 걸어준 기프트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니 활기차지고 적극적으로 변화함/난 안 될까야 했는데 되니까 앞으로 뭔가 해도 될 것 같음/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운 삶에서 이제는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삶	희망을 발견함	미래가 있는 삶이 현실로 !
고정거래쳐 생기고 지출이 줄어 소득이 증가함/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이 증가함/자녀 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음 / 차상위에서 당당히 탈출함/ 수급에서 벗어나/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함/완전 독립된 개인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상황/ 부채정리 시점과 맞물리면서 안정을 찾는 데 도움 이 됨/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 대표로 변화/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함/지하에서 2층으로 이사 함/ 큰 집으로 이사함/ 돈관리가 짜임새 있어짐/ 차량지원으로 장사 규모가 확대되어 매출이 증대함/ 목표가 없거나 막연한 것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실현함/ 자립의 비전을 갖게 됨/하루살	소득 증가로 자립의 기반 마련	

<p>기도 어려운 삶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이 됨 / 가계를 낼 계획/시장 중매인이 될 계획/ 기프트카 덕에 점포 마련 계획이 앞당겨짐/ 소득이 증가하여 큰 차를 구입함/ 부업에서 기업으로 발전함</p>		
<p>도움 받는 가난한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경험함/ 다시 태어난 기분이 됨/ 잊고 있었던 자기 본 모습을 찾게 됨/ 많이 웃게 되고 편안해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됨/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변화됨/ 행복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됨/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에서 밝은 사람이 됨/ 굳어 있었는데 자주 웃게 됨/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되어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김/ 360° 바뀜/ 긍정의 기운이 많이 오는 느낌을 받음/ '될 해도 안 될 것 같은'에서 '될가 해도 될 것 같은'으로 변화함</p>	<p>'될 해도 안 될 것 같은'에서 '될가 해도 될 것 같은'의 기운을 느낌</p>	<p>'나'와 '나'를 둘러싼 관계가 변화함</p>

<p>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함/ 도움 받는 삶이 아니라 도움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음/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변화함/ 이웃과 어울리면서 장사를 즐겁게 함/ 차가 깨끗하니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성공하고 싶음/ 사업 노하우를 나누고 싶음</p>		
--	--	--

1.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함

지원대상자들은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또 다시 터널같이 캄캄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한다.

1.1 내가 일을 주도하게 됨

차가 없을 때는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받아서 했다. 규모가 크고 이윤이 많이 남는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일은 늘 고만고만했고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다 보니 일이 불규칙적이었고 제한된 일에 나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차가 생기면서 일을 찾아 멀리 이동할 수 있고 차에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같이 일할 동료들도 태우고 나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참고처럼 차에 장비를 보관하고 다닐 수 있으니 차가 천군만마인 셈이다. 즉, 차량이 지원되면서 스스로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일의 기회가 더 많아진 것이다. 또한 일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불안도 많이 줄어들었다.

연구자: 이전에 차가 없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참여자: 그냥 그런 일이 들어와도 제가 좀 하기는 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할 수가 없고 자재를 싣고 갈수도 없고, 음. 그래서 그런 차가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이번에 이런 일을 땀에 오더를 땀는데 네가 사람을 태우고 나도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부탁을 해서는 가능한 한데 그건 또 그 사람 일정에 맞아야 하잖아요.

연구자: 그렇죠

참여자: 그러니깐 그전엔 그런 일이 와도 선뜻 네 할게요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일당으로 주로 일당으로 일을 하는 사람 뒤를 쫓아다닌 거지.

<참여자 A>

의미단위	하위 범주	상위 범주
<p>인사하는 아빠에서 인사 받는 아빠/ 집에 있는 아빠에서 일해서 용돈 주는 아빠/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고마운 차/ 아들에게 분이 되는 아버지/ 자식들에게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활기업에 자부심을 느낌/ 아이들에게 분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 계획임/ 아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됨</p>	<p>당당한 부모의 모습</p>	
<p>(일과 가정 양립) 차 덕분에 일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아이들을 더 잘 돌보게 됨/ 차를 갖고 일을 하니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음/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어디에 매이지 않고 아이 살피면서 할 수 있는 장사가 최고/ (가족관계) 딸과의 대화가 많아짐/ 아이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생김/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길어짐/ 대화할 시간이 많아짐/함께 움직일 수 있어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마련됨/ 아이들 성격이 밝아짐/딸이 밝아지고 아빠 일을 잘 도와줌/ 아이들과 웃음 찾고 살게 됨/ 애들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가게를 자주 찾아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이 밝아짐/ 가족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됨/차가 있어 심리적으로 든든함/마음의 부자가 됨/ 마음의 여유가 생겨 가족 내외 관계가 좋아짐/ (여행) 가족 여행에 차를 활용하고 있음/ 외식을 자주 할 수 있게 됨/ 아이들과 여행을 자주 가게 됨</p>	<p>가족과 더 화목해짐</p>	<p>'나'와 '나'를 둘러싼 관계가 변화함</p>
<p>(확대가족) 기프트카를 받은 사실을 처가 식구들이 알아줬으면 함/ 장모님에게 살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음/ 친척들에게 기프트카 받게 된 사실을 알리고 싶음/ (주변인) 대인관계 단절에서 용기를 갖게 됨/ 남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됨/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넓어짐/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는 분이 되어 행복을 준 것 같음/ 기프트카 지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변 사람들이 더 미더워하는 것 같음/ 하려고 하니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김을 경험함/ 나눔에 대한 생각과 실천/ 도움 받았으니 나눔을</p>	<p>관계 빈곤에서 탈피</p>	

1.2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함

지원대상자들이 할 수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일에 대해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또한 공짜로 지원받게 되었다고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기력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여러 도움을 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한다.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허투루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이 없고 안 풀리고 할 때는 혼자 술도 많이 마시고 해서 건강을 돌볼 생각도 못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술 먹는 것도 줄고 일 때문에 바쁘지만 오히려 건강은 더 좋아진 기분이 든다.

참여자: 대한민국에 와서 무슨 행운을 타고 났나 그랬어요 이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건가. 그게 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누린거죠 그 분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참여자 B>

참여자: 그리고 인제 그만큼 저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기프트카 이제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부터 이제 꼼꼼하게 해주려고 최대한 지금 마음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찾고, 저를 찾고, 찾고 하나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이제 많이 바빠요.

<참여자 C>

2. 미래가 있는 삶이 현실로!

지원대상자들이 내 일을 하게 되면서 수입이 늘었다. 예전에는 현재를 살아내기가 힘들어서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면, 이제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2.1 희망을 발견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무엇 하나 되는 일도 없고 무엇을 시작하기도 어려워 끝도 없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었다. 하루하루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오늘 하루를 빨리 보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 내일이라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그러던 중에 기프트카 캠페인을 접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는 선발과정을 통과하여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제 자포자기했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 하는 생각,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내자는 생각만 가득했던 삶, 혹은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해서 발등의 불을 끄느라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삶에 기프트카가 초록불을 켜준 셈이다. 이제는 미래를 그려보고 미래 속에서 현재를 조망하는 여유도 갖게 되었다.

참여자: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만해도 내가 그때 심정을 얘기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시절이었었구나 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을 안떴으면 좋겠는거야. 오늘 저녁에 잠든 지금 이대로 내일 아침해가 안 떴으면 좋겠는거야. 근데 지금은 밤에 잠자는 게 아깝다는 거야. 아침에 해뜨면 즐겁고 물론 내가 성격이 온순하고 순하고 선한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뭐 지랄 맞기도 하거든 그래서 좀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좋은거야.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좋은거..

<참여자 D>

2.2 소득 증가로 자립의 기반 마련

기프트카 캠페인은 현금 지원사업과 다르다. 부족한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달리, 기프트카 캠페인은 지원대상자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소득이 증가하고 자녀들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해졌다. 빚을 갚고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하고 수급권자에서 탈피하는 변화도 일어났다. 정부 지원을 받던 삶, 그래서 정부 지원이 끊기면 살 길이 막막했던 그런 삶에서 정부 지원이 끊겨서 오히려 기쁜 삶으로 달라졌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점포를 알아보고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기도 한다. 차량 지원을 받아 내 일을 하게 된 것이 좋지만 이제는 노점이 아닌 내 가게도 갖고 싶다. 노점 자리를 찾아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

나라 내 가게에서 세금도 내고 버젓이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래서 오늘도 노점을 하면서도 어느 목이 좋은지 계속 탐색 중이다.

참여자: 그렇죠 경제적이죠. 경제적이고 애들도 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고 왜냐면 그땐 딸 하나 아들 하난데 방 하나에 살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애가 중학생인데 옷 갈아 입을 방도 없었고 지금은 이사갔죠 애들이 다 잘 커줘서 지금 다 학생이에요. 대학교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참여자 E>

참여자: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차상위 떨어진 것도 너무 기쁘요. 예전 같으면 아 큰일 났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도 가야되고 했을텐데.. 떳떳하게 3천원 처음으로 냈어요. 그 3천원 안 내고 살았어요. 병원비 뿐만 아니라 약값도 면제예요. 그런데 3천원 낸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 F>

참여자: 벗어났고 지금은 이제 또 올해부터는 집사람 이름으로 사업체도 내가지고

연구자: OO사업 내셨어요?

참여자: 예 사업자 냈어요.(중략) 그래서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해야 하나까

연구자: 그럼 이제 수급은?

참여자: 예, 수급은 뺐어요. 벗어내고 <참여자 C>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변했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변했다고 말해준다.

3. '나'와 '나'를 둘러싼 관계의 변화

일을 하게 되면서 나도 달라졌고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비롯하여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다. 일이 없어 만납가지 꺼리고 소원해졌던 관계는 양적·질적으로 달라졌다.

3.1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에서 '뭔가 해도 될 것 같은' 긍정의 기운을 느낌

일단 많이 웃게 되었다. 웃을 일이 없었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 것 같다. 잊

고 싶었고 잊고 있었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찾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든다. 지원 전과 지원 후는 360° 달라졌다. 경쟁을 통해 기프트카 캠페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뿌듯함, 자신감, 용기가 생겨났다. 예전에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뭘 해도 될 것 같은 긍정의 기운이 강하다.

참여자: 네. 운이 열리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동양식으로 뭔가를 해도, 앞으로 해도 될 거다 이런 이것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그게 긍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참여자 G>

3.2 당당한 부모의 모습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비단 경제적인 자원만이 아니다. 열심히 사는 부모의 모습, 본이 되는 모습도 아이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기프트카 캠페인 덕분에 바람으로만 남아있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여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그전에 이 차가 없을 때 내 자식들한테 뭐 잘못하고 그런건 아니지만, 제 맘에 야, 그래도 아빠가 애들한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마음이 들었지니까 이 차가 나한테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구자: 아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차를 받게 됐다? 그런 거?

참여자: 아니죠, 내가 이 차로 인해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전에는 일이 없으니까..

연구자: 아 그렇구나. 차가 있으니까 일이 생겨가지고 아빠가 열심히 하는 모습 당장 보이겠구나. 아빠가 맨날 나가니까.

참여자: 그 전에는 일이 없으니까 애들 학교 가는데 잘 갔다와 집에 있으니까 잘 갔다와 이라고 말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우리는 학교 가는데 아빠 일 안 나가나 이런 생각 안 했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이제 아빠 간다 이러면 애들이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한 번도 이제 한 번도 집에서 어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 잘 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일이 있으니까.

<참여자 C>

3.3 가족과 더 화목해짐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차 덕분에 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일가정 양립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조금 해결되었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날, 그런데 일을 해야 하는 날, 이런 날에 아이와 함께 일을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일하는 도중 오고 가면서 남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아이를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 차가 생기면서 차와 새로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해졌고 함께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기프트카 캠페인은 가족을 한데 묶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참여자: 그래서 자식들을 돌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 장사니까 마진을 적게 먹든 많이 먹든 그냥 주든

연구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참여자: 예 누가 뭐 터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말도 잘 듣지만 괜히 사춘기가 되어서 솔직히 집이 비어있으면 애들이 뭘 짓을 할 지 몰라요. 엄마가 바쁘거나... 내가 돈을 뭐 때 돈을 벌든, 뭐 몇 억을 벌든 애들이 괜히 부모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에는 성범죄 이런 것도 크고 그러니까 적당히 벌면서 자식이 잘 크길 바라는 게 엄마고 또 한부모이다 보니까 아빠 없는 자리에 좀 애들이 서운하지 않게 채워주는 게 부모의 소원.. 그 차를 연수를 해가지고 잘 몰고 다니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집 주변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왜냐면 아이들이 학원을 가면서 엄마 배고파, 그러면 친구들 데려와서 뭐라도 먹어라 그리고 주는 입장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H>

참여자: 기프트카가 나와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되게 되고, 아이가 또 제대로 컸고 제가 도움 받은 건 아이를 제대로 키웠다는 거. 기프트카가 나와서. 멀리 안가고 작년보다 집에 들어와서 아이 밥 챙겨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참여자 I>

참여자: 혹시 아빠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애들한테 쪽팔리고 그런거 없냐 물었더니 아 그런 거 없다고 괜찮다고 그냥 이 차 때문에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중략) 기프트카 오면서 저하고 말도 많이 하고 좀 편해졌으니까요.

<참여자 J>

3.4 관계 빈곤에서 탈피

일이 없을 때는 집 안에만 있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일이 생기면서,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나눔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실천도 하게 되었다.

참여자: 그쵸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그냥 나가게 되는. 그리고 뭐라고 물어도 굳이 숨길 필요는 없는데 굳이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그게 제 변화죠. 남이 옆에서 지켜보는 변화는 잘 모르겠고 제가 원체 잇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변했죠. 누군가한테 다가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돈이 없어도 친구니까 다가가 수 있다는 거. 그 때는 그 전만 해도 아 정말 내가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술 한 잔 사준다 말도 하기도 힘들고

<참여자 G>

참여자: 저도 기프트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 같거든요. 감사한 거를 많이 표현을 못했거든요.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해서 나중에 저희 시즌 3때 받을 때 어느 분이 자기도 나중에 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는 분 있어요. 차를 갔다가 어려운 사람한테 할 정도의 사업을 키우겠다. 저도 그런 기부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나중에 받은 만큼 저도 사회에 기부할 생각도 있습니다.

<참여자 K>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원대상자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창업은 자립의 중요한 축으로 기존에는 주로 정부와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

으로 창업지원사업이 이루어졌고 평가되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 시기에 모든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졌지만 저소득층의 사정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들 저소득층의 자립은 일을 통해서 가능한데,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적었고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서 빚이면 몰라도 자산을 축적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에게 취업과 점포 자영업과 같은 창업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창업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 이동식 점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 주도의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원대상자의 이야기를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를 위해 차량 지원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기프트카 캠페인'을 사례로 선정하고 지원대상자 30명에 대한 개별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 결과를 개념화와 범주화 방식으로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이들이 경험한 성과를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대상자들은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일을 하게 되니 소득이 증가하였다. 차가 없을 때는 가진 것이 오로지 몸 하나라서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천군만마와 같은 동반자인 차가 생겨서 여러 사람 몫의 일을 계획하고 실제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에 끌려 다니던 삶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책임감도 생겨났다. 외부 지원을 공짜로 받게 되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잡은 이 기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차량 지원기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책임감은 성실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성실성은 함께 일하는 사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낳았다. 이러한 신뢰는 일거리의 꾸준한 확보, 단골 확보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소득 증대의 고리를 형성하였다.

차량 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의 비경제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실 인간의 삶의 영역들이 모두 얽혀있어서 어디까지가 경제적인 변화

이고 어디까지가 비경제적인 변화인지 구분이 불명확하기는 하다. 그러나 명명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지원대상자들은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삶에서 차량 지원 사업에 선발되었다. 선발의 의미 또한 매우 크다. 로또처럼 운이 좋아서 당첨된 것이 아니라, 차량지원사업에 서류를 내서 신청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해도 안 되던 내가 되는 것도 있으나, 될 수 있구나와 같은 식의 사고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또한 늘상 미안했던 가족,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마음껏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하고 그래서 더욱 움츠려들었던 아빠, 엄마이었는데 선발되어 차를 지원받고 출근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관계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차는 단순히 생계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녀 등하교 지원, 자녀 친구들 픽업, 부모님 친구 모임 이동 지원, 가족 여행 등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열심히 일하는 부모와 아들을 여러 사람 앞에 자랑하게도 되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자 주변인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관계가 끊어졌던 친구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불편했던 자리도 조금 여유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비경제적 변화들은 소득이 몇 % 증가하였는지, 탈수급을 이룬 사람이 몇 명인지, 빚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등과 같은 양적인 지표에서는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경험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주관적인 경험은 맥락이 변화하면,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전국을 다니며 열심히 해 보려던 이벤트 사업이 연이은 행사 취소로 난항을 겪고, 차는 있는데 사업할 준비는 다 했는데 목 좋은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점포를 펴보지도 못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본 연구에서 드러난 주관적인 성과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다름의 경험'이다. 남의 일을 받아서 했던 것에서 내 일을 해 본 경험,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것에서 지원대상자로 당당히 선발된 경험, 학교 잘 갔다 와라고 인사만 건넰 아빠에서 아빠 잘 다녀올게 라고 이야기한 경험, 딸

에게 학원비나 용돈을 준 경험들이 거창한 성공은 아니지만 ‘다름’을 만들어 냈고 이것이 밑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자들은 기프트카 캠페인이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제안하였다. 창업 자금 지원이 업종,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되었으면 하는 바람, 차량 지원 시 업종 뿐 아니라 가족 상황 등이 고려되어 차종 및 내부사양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 등 기프트카 캠페인이 ‘맞춤형 지원’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본 연구는 기프트카 캠페인을 통해 기업 주도의 창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도 매우 크고 가계부채도 매우 높은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살아가는 것은 점점 어려운 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창업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삶에 순결과 희망을 투입’하는 것이다. 기업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이 확산될 때 구매력을 갖춘 소비층이 확대될 것이고 이는 소비촉진으로 기업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기업 주도의 창업지원사업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노하우까지 쉽게 접목될 수 있어 경영 전문성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한편, 맞춤형으로 창업지원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안을 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공헌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창업지원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 생계용 차량이지만 차가 한 대 생겼다는 이유로 준비할 시간 없이 당장 정부지원에서 탈락되어야 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업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일 개 기업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지원대상자의 관점

을 반영하여 성과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기업 창업지원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향후에는 성과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창업 지원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휘, 황정임, 류연규,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연구: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74권, 제1호, pp.105-138, 2008.
- [2] <http://goo.gl/7dCdBq>
- [3] 김상순, 김종원, 양영석,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2호, pp.167-175, 2012.
- [4] 백학영, 조성은, 김경휘, 박경하, “창업공동체의 지속과 성장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지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제2호, pp.291-324, 2010.
- [5] 성정현, 김지혜, “빈곤여성가장 대상 무담보소액대출사업의 효과: 생활자금을 지원한 한국여성재단 긴급지원 캐쉬 SOS 사업의 사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1권, pp.173-201, 2009.
- [6] 임은의, “마이크로크레딧 이용자의 창업요인 및 자기효능감이 사업체의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12호, pp.1-12, 2015.
- [7] 장영미, 저소득계층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요인에 관한 연구: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8] 정영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소득증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피 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24권, 제4호, pp.89-115, 2008.
- [9] 조영금,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을 통한 창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연대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0]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년 주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15.

[11] 방대욱, 강철희, 허수연, “기업과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파트너십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5권, 제3호, pp.217-241, 2013.

[12] 김승구, 여성가장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에 관한 연구: S생명보험회사의 사회공헌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3]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사업 10주년 성과 보고서, 2013.

[14] 임유진, 임은의, 박상금, 이예승, “마이크로크레딧 이용 후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구주의 변화 유형에 관한 분석-Q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45권, pp.121-147, 2014.

[15] 임은의, 박현정, 박은주,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업체의 생존을 추이 및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여성연구, 제88권, pp.373-402, 2015.

[16] 정종희, 조지운, “소상공인의 경영자 자질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37-161, 2015.

[17] 최동락,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이 소상공인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8] 정성한, 김해룡,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4권, 제2호, pp.3-29, 2001.

[19] 이남주, 소상공인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0] Anastas, Jeane W., “Quality in Qualitative Evaluation: Issues and Possible Answer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14, No.1, pp.57-65, 2004.

[21] 유태균 역,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출판, 2001.

[22] 김영천, 내 학교 이야기 - 한국 초등학교의 교실 생활과 수업, 서울: 문음사, 1996.

저 자 소개

정 선 옥(SunWook Jung)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석사)
 - 2002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아동복지, 가정의 보호 아동, 아동권리, 빈곤아동

손 주 영(JuYoung Son)

정회원



- 2007년 9월 :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학사)
 - 2010년 9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석사)
 - 2011년 7월 ~ 현재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근무
- <관심분야> : 아동복지, 빈곤아동, 아동참여

김 은 정(EunJung Kim)

정회원



- 198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사)
 - 1998년 2월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석사)
 - 2008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박사)
 - 1984년 11월 ~ 현재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근무
 - 2013년 1월 ~ 현재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빈곤아동/가족, 가족치료, 취약계층 아동보호체계